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10-24(통권 404호)
2010.0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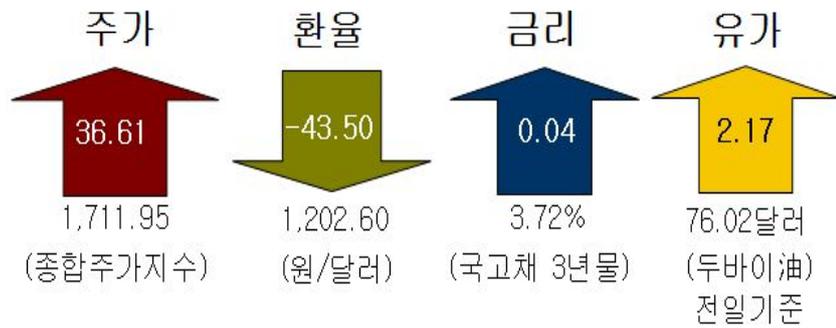
■ 가계 재무구조와 수익성 악화 - 가계부채의 재조명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11~6.18)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가계 재무구조와 수익성 악화 가계부채 재조명을 통한 시나리오 분석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박 덕 배 전문연구위원 (3669-4009, dbpark@hri.co.kr)

Executive Summary

□ 가계 재무구조와 수익성 악화 : 가계부채 제조명을 통한 시나리오 분석

■ 재무구조(B/S), 수익성(P/L) 관점에서의 가계부채 문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자산 급증, 충분한 실물자산 등 자산적인 측면과 가계의 이자지급 여력 등 현금흐름 측면에서 아직 우려의 상황이 아니라는 긍정적 견해도 상존하고 있다. 가계부채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보다 가계의 재무상태표(B/S)의 스톡(stock) 개념과 손익계산서(P/L)의 플로우(flow) 개념에서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B/S 측면에서 보면 2002년 이후의 국내 부동산가격 급등과 더불어 금융부채에 기반한 비유동성 실물자산의 시가 증가로 가계의 외형 총자산이 이전에 비해 커졌지만, 이에 비례해 가계의 '주택가격 리스크'와 '유동성 위험'도 높아진 상태다. 즉, 가계의 총자산(실물자산+금융자산) 추이를 2006년 기준 통계청 가계 실사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총자산대비 가계부채'를 계산해보면 2003년 13.4%에서 2009년 16.4%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P/L 측면에서도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이자지급 추세는 2004년 3.1%에서 2007년 7.5%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 기조로 일시적이거나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계 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도 2005년 15.3%에서 2007년 20.2%로 상승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와 원금상환 유예로 큰 폭 하락하여 2009년 6월말 기준 14.7%를 기록하고 있다.

■ 시사점과 대응 과제

향후 국내 주택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상승하고, 원금 상환을 해야 할 경우 가계 B/S와 P/L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즉, 주택가격이 5%p, 10%p, 20%p 하락할 경우 총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말 대비 각기 1.6%p, 2.3%p, 4.0%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출금리가 1%p, 2%p, 3%p 상승할 경우 가처분소득대비 이자지급 비율은 2009년 말 대비 각기 1.2%p, 2.4%p, 3.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다 원금상환이 본격화되면 이자부담 증가와 더불어 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이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가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순자산이 축소되면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특히 대출을 재경신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한 담보보강, 차액상환 등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특히 차입비중이 유난히 높은 가계의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가계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재무구조(B/S)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문제를 가격조정으로 해결하면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여 실물자산의 가치 급락을 방지해야 한다. 가계차원에서도 자신의 변제능력을 웃도는 부동산을 과감히 처분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악성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지나친 실물자산,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등에서 탈피하여 주식, 보험, 연금 등 자본시장 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안정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수익성(P/L) 개선을 위해 정책당국은 첫째,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급증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제고하여 가계 가처분소득을 증대해야 한다. 셋째, 국내 가계의 원리금 부담 축소를 위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미국 상업은행의 모기지론 형식으로 20~30년 장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계 재무구조와 수익성 악화 : 가계부채 재조명을 통한 시나리오 분석 >

국내 가계부채 논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가계부채, 2003 ~ 09년 동안 1.7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기여 ·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 주요국 중 영국 다음의 위치 - 이에 대한 우려와 긍정적 시각이 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악영향 · 금융자산 급증과 충분한 실물자산, 가계 이자지급 여력

재무구조(B/S)와 수익성(P/L) 관점에서의 가계부채 문제	
재무구조(B/S)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 B/S, 부동산가격 급등 이후 규모가 커지고 위험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부채 기반으로 한 실물자산 증가로 커짐 · 자산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험성이 커진 상황 - 자산대비 부채 비율 2003년 이후 빠르게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산(금융+실물)대비 부채 비율 빠르게 증가
수익성(P/L)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 P/L, 부동산가격 급등 이후 수익성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리금 지급규모가 커지고, 저축이 축소 - 저금리·거치기간연장으로 원리금 부담 일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로 가처분소득대비 이자부담 축소 · 거치기간 연장되면서 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 하락

시사점과 대응 과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건 악화 시 가계 재무구조(B/S), 수익성(P/L) 악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 급락 시 가계 총자산 대비 부채 급증 가능성 · 금리 상승 및 원금 상환 시 원리금지급부담 급증 가능성 - 재무건전성 악화로 소비축소, 대출상환 등 가계의 고통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리금지급 부담이 클 경우 자산매각을 통한 상환 노력 · 순자산가치 마이너스 경우 개인파산 가능성
가계 B/S, P/L 개선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구조(B/S) 개선 과제 : 가계 자산/부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택시장 연착륙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 · (가계) 재무 구조조정을 통한 부채 증가 둔화 유도 · (가계) 금융자산 확대를 통한 가계 자산구조 변화 - 수익성(P/L) 개선 과제 : 가계 현금흐름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급작스러운 금리인상 자제하여 이자부담을 안정 · (정부) 일자리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가계가처분소득 증대 · (금융기관) 가계부채 상환구조 선진국 수준으로 장기화

1. 국내 가계부채 논란

○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와 긍정의 견해가 혼재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국내 가계부채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증가
 - 국내 가계부채는 2003~09년의 7년 동안 1.7배 증가하여 2009년 말 현재 913.3조원을 기록
 -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하락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2005년 이후의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음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말 현재 153%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영국의 170%대 다음으로 높은 수치
- 국내 가계부채에 급증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긍정의 견해가 혼재
 - 가계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소비약화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
 - 금융자산 급증, 충분한 실물자산 등 자산적인 측면과 가계의 이자지급 여력 등 자금흐름 측면에서 아직 우려의 상황이 아니라는 긍정의 견해 상존

○ 가계부채 문제를 부채규모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보다 자산과 현금흐름 측면에서 가계가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의 추세에서 판단할 필요

- 자산대비 부채의 규모가 안정적이고,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이자지급이 안정적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¹⁾
 -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가계부채와 이에 따른 이자지급 부담이 증가하는 동시에 가계자산과 소득도 증가
- 따라서 여기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가계의 재무상태표(B/S)의 스톡(stock) 개념과 손익계산서(P/L)의 플로우(flow) 개념에서 관련 지표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재조명하고자 함

1) 2010년 1/4분기 자금순환 개인부분의 금융부채는 8.8조원, 금융자산은 51.5조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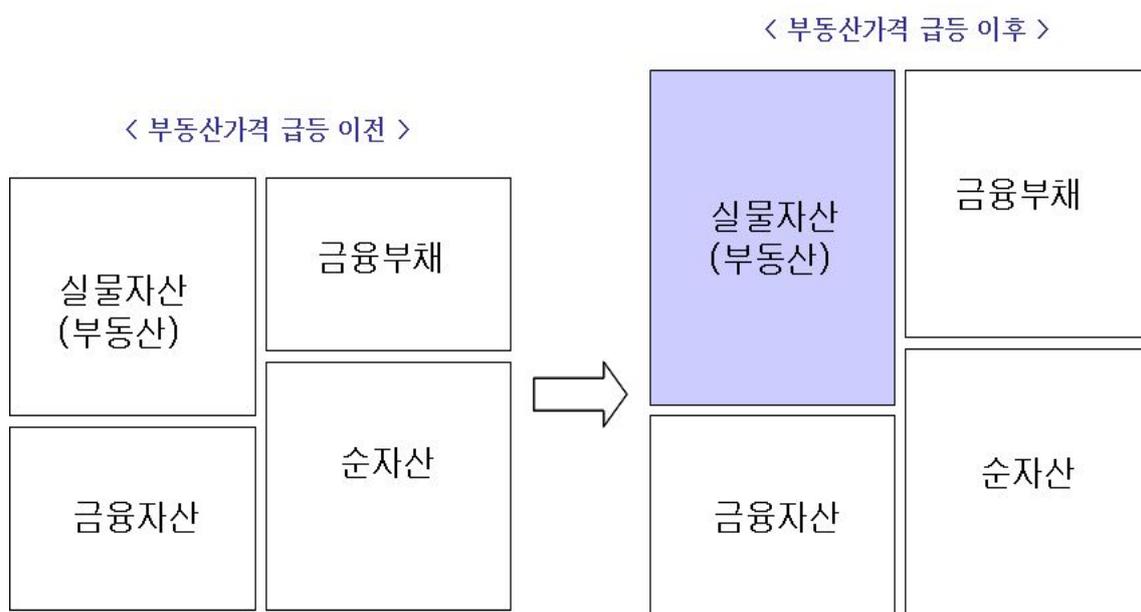
2. 재무구조(B/S)와 수익성(P/L) 관점에서의 국내 가계부채 문제

(1) 재무구조(B/S) 관점

○ 2000년대 부동산가격 급등 이후 부채에 기반 한 실물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국내 가계의 재무상태표(B/S)가 커진 반면 위험성도 증가

- 2002년 이후의 국내 부동산가격 급등과 더불어 금융부채에 기반하여 비유동성 실물자산의 時價가 커지면서 가계의 B/S가 이전에 비해 커진 상황
 - 금융자산의 경우 실물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음
 - 순자산도 부동산가격 급등 이전보다 실물자산 가치 급등으로 상승
- 가계 B/S가 커지면서 가계의 '주택가격 리스크'와 '유동성 위험' 등도 높아짐
 - 국내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부동산의 가격변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물자산 가치가 급락할 경우 가계 순자산이 크게 축소 가능성
 -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부채에 크게 의존한 가계의 자산은 대부분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형태로 지니고 있어 부동산시장 침체 시 '팔려고 매물을 내 놓아도 팔리지 않는' 유동성 문제도 지니고 있음

< 부동산가격 급등 이후의 가계 B/S 변화 >



- (가계의 자산대비 부채의 계산) 가계의 주택자산과 총자산은 2006년 기준 통계청 가계 실사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주택자산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자산(실물자산+금융자산)대비 가계 부채'를 계산
- 2007년 3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5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 2억 8,112만원 중 부동산이 76.8%, 금융자산이 20.4%로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중 주택의 비중은 총자산의 45.4%이며, 부동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0%임

< 2006년 가구당 평균자산 및 구성비 >

(단위 : 만원)

	가구당 평균 자산 (전체)
총자산	28,112.3 (100.0%)
○ 금융자산(저축액+전월세보증금)	5,744.8 (20.4%)
○ 실물자산(주택, 토지, 건물 등)	21,604.1 (76.8%)
- 주택	- 12,755.9 (45.4%)
부채 총액	3,947.9
순자산	24,164.4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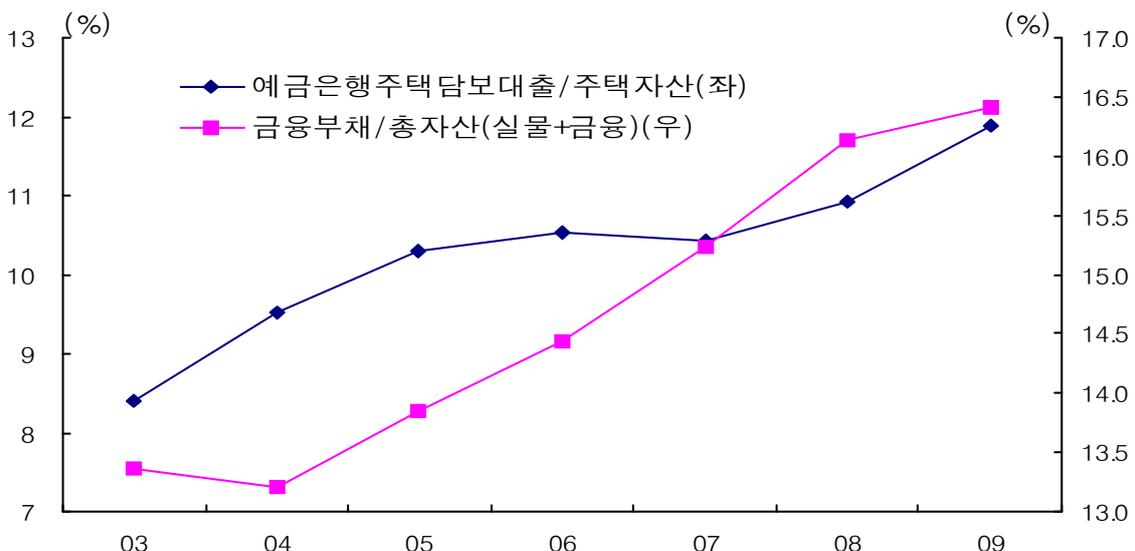
- 2006년 기준 실사자료를 2006년도 자산(주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등)과 부채로 하고, 2006년 이외의 기간에는 각 자산의 증가율과 부채 증가율을 고려하여 계산
 - 주택과 실물자산의 증가율을 주택가격 상승률로 代用하고, 금융자산과 부채 증가율을 자금순환의 금융자산 증가율과 금융부채 증가율을 代用
 - 총자산에는 기타자산도 포함되어 있지만 미미한데다 분석을 위하여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합을 고려
 - 예컨대 2003~2005년의 가계 주택자산의 경우 익년도 주택자산/(1+주택가격상승률)를 사용하고, 2007~2009년의 경우 전년도 주택자산*(1+주택가격상승률)을 사용

- 여기서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주택자산대비 예금은행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자산(금융+실물)대비 가계부채'를 분석
 - 예금은행주택담보대출이 국가 전체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계 주택자산에 각 년도의 추계 가계 수를 곱하여 국가 전체의 주택자산과 부채 비율을, '총자산(금융+실물)대비 가계부채'는 그대로 가계 차원에서 비율을 계산

○ 가계 B/S에서의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가계 B/S에서 주택자산대비 예금은행주택담보대출비율은 2005년 이후 주춤하다가 2008년부터 빠르게 상승
 - 주택자산대비 예금은행주택담보대출 비율은 2003년 8.4%에서 2009년 11.9%로 상승
 - 200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
- 카드 사태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던 총자산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2005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다가 2009년 증가폭이 소폭 둔화
 - 총자산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3년 13.4%에서 2009년 16.4%를 기록

< 자산대비 부채 비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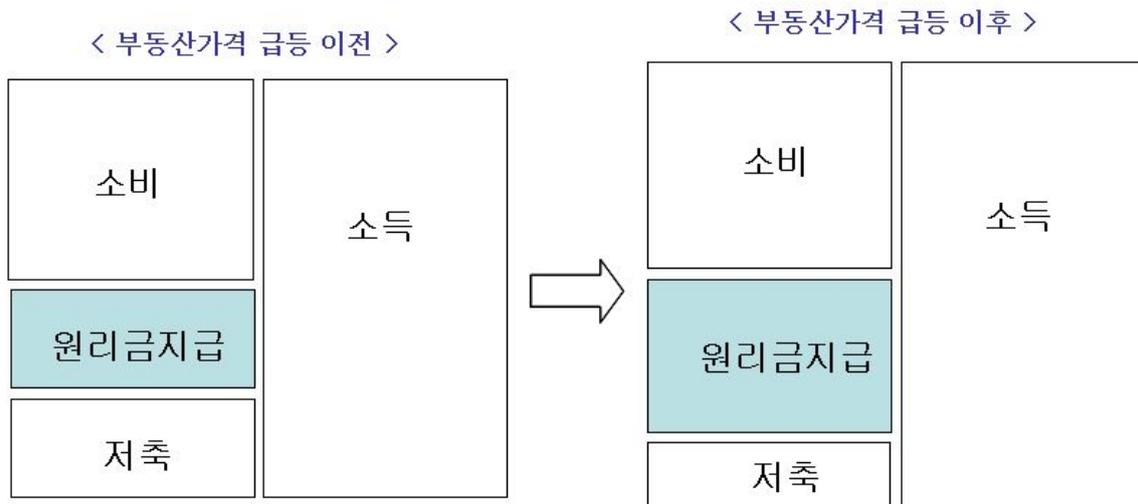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 가계 수익성(P/L) 관점

○ 부동산가격 급등 이후 증가된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 증가와 이에 따른 저축 축소 등 가계 손익계산서(P/L)에서의 변화가 나타남

- 가계부채 증가로 인하여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금지급이 크게 늘어나고, 그 결과 P/L에서 순이익에 해당되는 저축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 가계부채 증가로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원리금지급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대신 저축은 축소
- 실제로 국내 저축률은 2004년 8.36%에서 2009년 3.2%로 지속 하락 추세

< 부동산가격 급등 이후의 가계 P/L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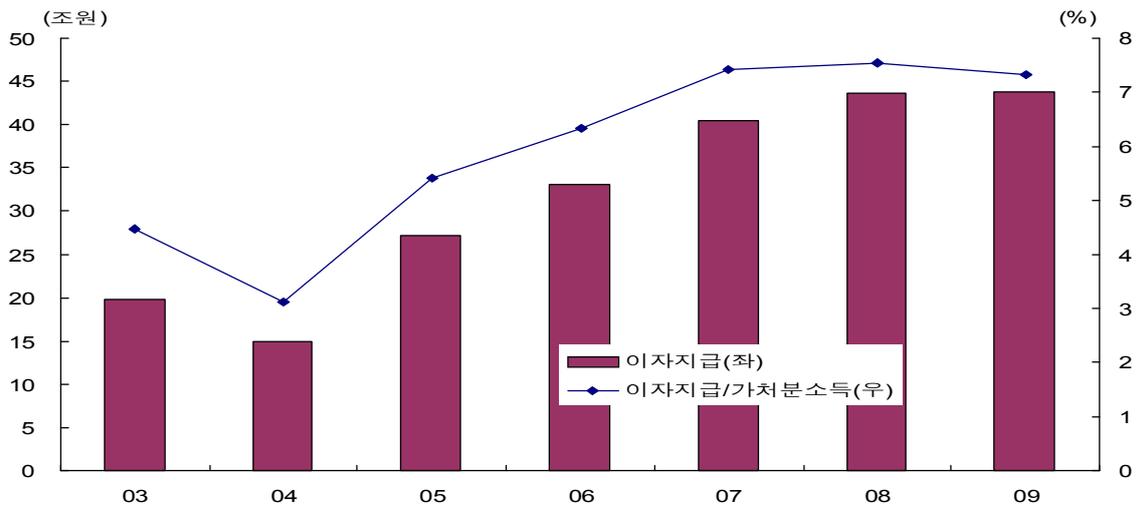


○ 가계 P/L에서 가처분소득대비 이자지급 추세는 2004년부터 빠르게 증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고 있으며, 원리금상환비율도 하락

- 가계부채 증가로 이자지급이 2004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고 있음
 - 부채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자지급이 늘고 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초저금리 기조로 이자지급 규모 증가세가 둔화

-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이자지급 비율도 2004년 3.1%에서 2007년 7.5%로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8년 7.5%, 2009년 7.3%로 하향세
- 국내 가계부채가 가계 자산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저금리에 의한 이자지급액이 둔화됨에 따라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는 상황

< 가처분소득대비 이자지급 비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빠르게 증가하던 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
 - 2005년 15.3%에서 2007년 20.2%로 상승하였으나, 2009년 하락하여 6월말 기준 14.7%를 기록
 - 저금리로 DSR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미국보다 높은 상황
- 고정금리·장기 원리금분할상환 구조를 지닌 미국의 모기지론 시스템의 경우 DSR은 거의 일정한 반면 한국의 경우 DSR 비율이 불안정함
 - 한국의 경우 변동금리 위주이며, 일시상환 비율이 높고, 거치기간을 두어 원금상환이 불규칙하여 원리금상환 부담이 불규칙
 - 일정 거치기간 이후 계획된 원금 상환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거치기간이 연장되면서 본격적인 원금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한국과 미국의 DSR(원리금상환부담비율) 추이>

(%)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15.3	19.3	20.2	20.1	14.7
미국	13.8	13.9	13.9	13.6	12.6

자료: 한국은행, FRB.

주: 1.원리금상환부담율=(원리금상환액+이자지급액)/가처분소득*100.

2.한국의 2009년은 6월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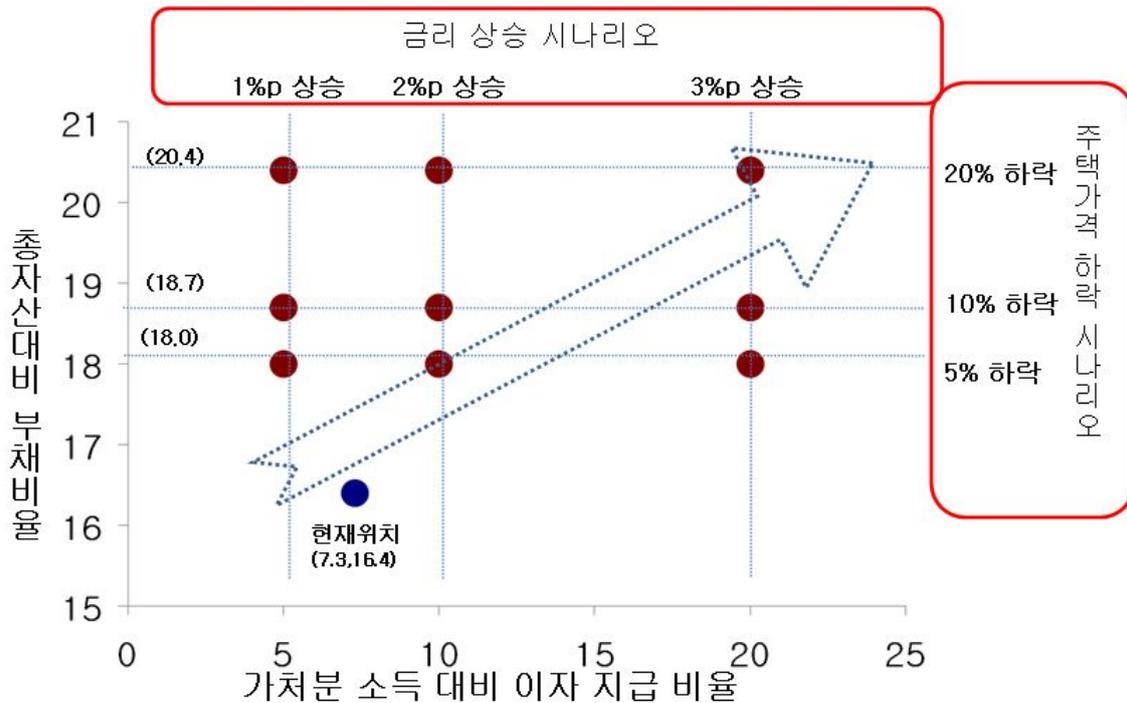
3. 시사점과 대응 과제

○ 향후 국내 주택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상승하고, 원금 상환을 해야 할 경우 가계 B/S와 P/L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국내 주택시장은 높은 가격과 극도의 거래부진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이 지속되다,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미국, 영국 등이 각기 고점대비 33%, 20%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은 것에 비해 한국의 경우 거의 받지 않은 상태여서 하락위험 부담을 안고 있음
- 향후 출구전략과 물가상승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고, 거치기간이 지나면서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할 경우 원리금상환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음
 - 글로벌 경제 불안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큰 폭의 금리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의 일치된 견해
 - 일정 거치기간 이후 계획된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가계 자산증가 속도 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
 - 2003~2009년 자금순환표에 있는 개인부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증가율이 각기 연평균 8.92%, 7.95%를 고려
 - 주택가격이 5%, 10%, 20% 하락할 경우 총자산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말 대비 각기 1.6%p, 2.3%p, 4.0%p 상승한 18.0%, 18.7%, 20.4% 전망

< 시나리오 별 재무구조(B/S), 수익성(P/L) 지표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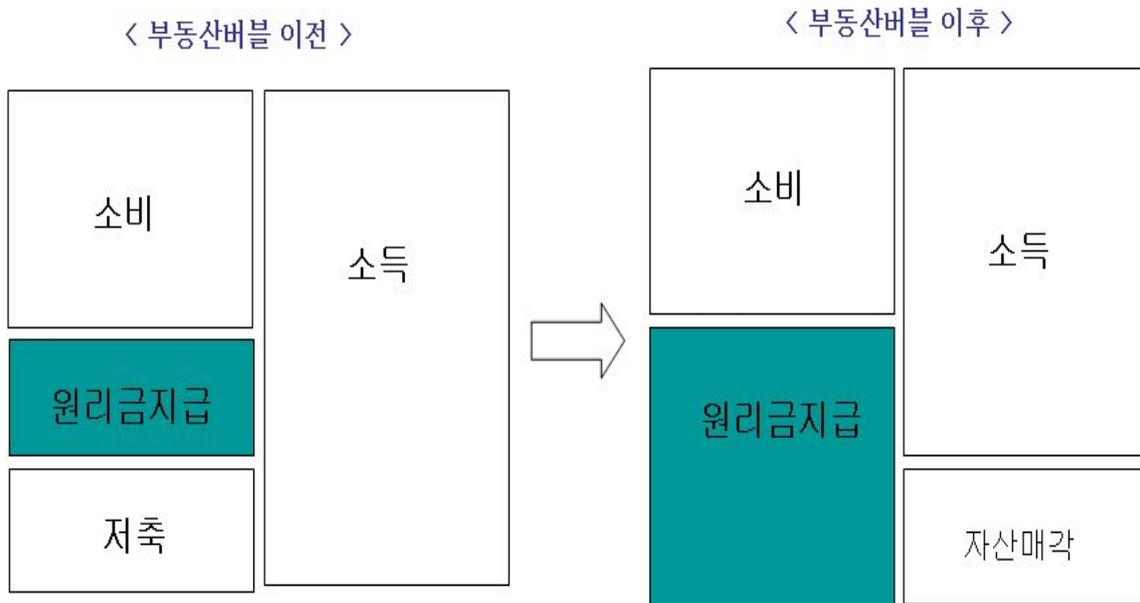


- 대출금리가 상승하거나 원금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
 - 대출금리가 1%, 2%, 3% 상승할 경우 가처분소득대비 이자지급 비율은 2009년 말 대비 각기 1.2%p, 2.4%p, 3.5%p 상승한 8.5%, 9.7%, 10.8%로 나타남 (가처분소득이 5% 상승 가정)²⁾

2) 2009년말 기준 가계대출이 약 700조원인 점을 고려할 경우 향후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 2009년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약 250조원이며, 잔존 만기가 15년이 라면 매년 주택담보대출에만 대한 연평균 원금상환 규모가 17조원³⁾으로 나타나는 바, 이 경우 이자부담과 더불어 원리금상환부담률(DSR)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증가된 가계부채로 인하여 가계의 이자지급이 가처분소득 증가에 비하여 훨씬 늘어날 경우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 가처분소득은 줄고, 원리금부담이 유난히 늘어날 경우 자산매각을 통해 상환하려는 노력이 심화될 수 있음
 - 부동산시장 침체로 실물자산의 유동성 문제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큼

< 가계 P/L 상의 자산매각 사례 >



- 자산매각과 자산가치 급락으로 개인의 순자산이 축소되면서 負의 자산효과와 부채 상환을 위하여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재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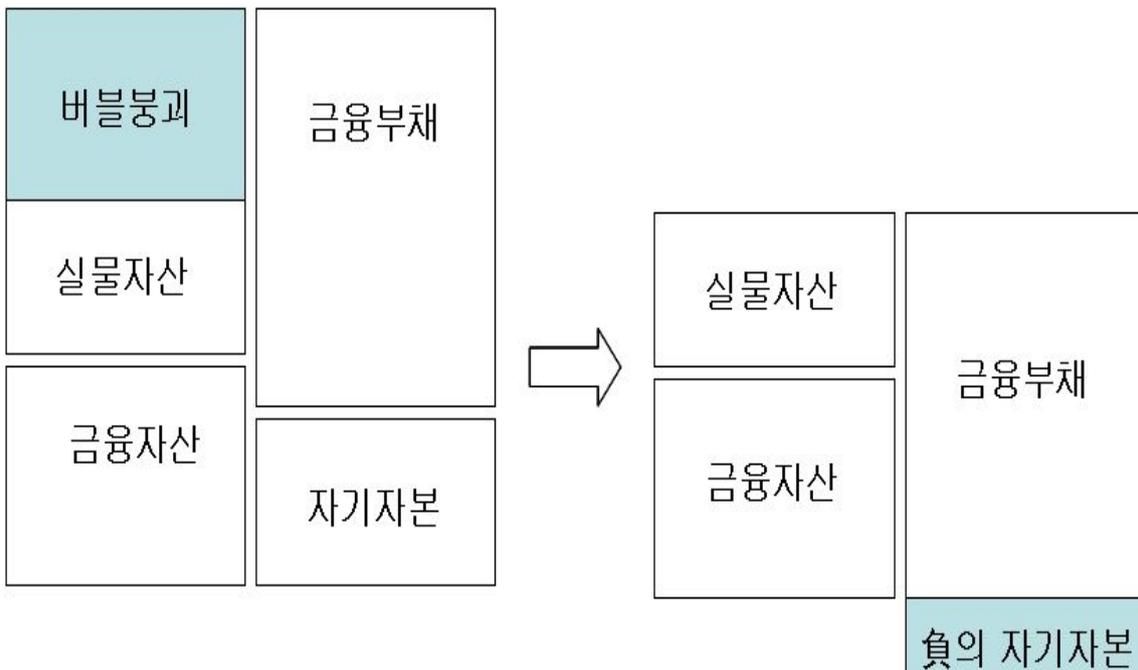
이자부담은 약 7조원 증가 가정

3) 2008.6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약정만기는 13.1년 수준(일시상환대출 3.3년, 분할상환대출 19.6년)이며 이후 만기 장기화 노력을 고려하여 15년으로 가정함

할 경우 LTV 비율을 지키기 힘들어 질 수 있음

- 담보대출을 재정신할 경우 LTV 비율 등을 맞추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보강, 차액상환 등의 요구가 거세질 수 있음
- 한편 차입비중이 유난히 높은 가계의 경우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개인파산 가능성이 높음

< 가계 B/S 상의 개인파산 사례 >



○ 국내 가계부채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 전에 악화되고 있는 가계의 재무 구조(B/S), 수익성(P/L)을 개선할 필요

- 국내 가계부채 급증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악화 될 경우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
 - 현재 한국의 경우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은행건전성이 유지되고, 비교적 빠른 경제회복을 시현하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대외충격이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높은 가계부 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음

- (가계 B/S 개선) 가계 B/S 상의 자산/부채 관리가 시급함
 - (정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수요를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미분양아파트 문제를 가격조정으로 해결하면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
 - (가계) 자신의 변제능력을 웃도는 부동산을 과감히 처분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확보된 유동성을 악성 가계부채 상황에 사용하여 부채 축소 필요
 - (가계) 지나친 실물자산,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등에서 탈피하여 주식, 보험, 연금 등 자본시장 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안정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
 - (정부, 금융기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물자산이 부족한 금융자산을 대신할 수 있는 역모기지 활성화 등의 방안 마련이 중요

- (가계 P/L 개선) 가계 P/L 상의 현금흐름 및 건전성 유지 필요
 - (정부) 급격한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리인상을 자제하여 가계의 이자부담을 안정화시킬 필요
 - (정부)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
 - (금융기관) 국내 가계의 원리금 부담 축소를 위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미국 상업은행의 프라임모기지론 형식으로 20~30년 장기화

박 덕 배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2072-6216)

< 부표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추이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미국	0.4	-2.7	-5.4	-2.4	-6.4	-0.7	2.2	5.6	3.1	3.0
유로 지역	0.6	-0.4	-1.9	-4.1	-2.5	-0.1	0.4	0.1	1.0	0.2
일본	-1.2	-4.9	-10.3	-5.2	-13.7	6.0	-0.6	3.8	1.9	5.0
중국	9.6	9.0	6.8	8.7	6.2	7.9	9.1	10.7	10.0	11.9
한국	2.3	3.1	-3.4	0.2	-4.3	-2.2	1.0	6.0	4.5	8.1

주: 1) 2008, 2009년 한국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4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6월11일	6월18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3.23	3.18	-0.05p
	엔/달러	90.76	96.65	92.93	91.67	90.87	-0.8¥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2182	1.2384	0.0202\$
	다우존스지수(p)	8,776	8,447	10,428	10,211	10,434	223p
	닛케이지수(p)	8,860	9,958	10,655	9,705	9,999	294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3.68	3.72	0.04p
	원/달러(원)	1,259.5	1,273.9	1,164.5	1,246.1	1,202.6	-43.5
	코스피지수(p)	1,124.5	1,390.1	1,682.8	1,675.3	1,712.0	36.7p

주: 6월 18일 해외지표는 전일(6월 17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6월11일	6월18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73.12	76.45	3.33\$
	Dubai	36.45	71.85	78.06	74.03	76.20	2.17\$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55.92	263.30	7.3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